

‘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에 기반한 학교위험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

박 재 숙**

(대구한의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학교위험요인이 어떠한 경로 구조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Escape Theory)’ 모형에 기반하여 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8 경 상북도청소년위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 2,3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위험요인 중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를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변인 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는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 등의 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 이러한 경로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교위험요인, 청소년, 자살생각, 부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대처

1. 서론

청소년 자살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10-19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2위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였다(통계청, 2009). 더욱이 청소년 자살률은 2001년

* 본 연구는 저자의 2010년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 변형한 것이다.

** 대구한의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

5.3% 수준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8.0%로 늘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박재연, 2010). 중국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자살이 이미 청소년 사망원인 1위에 올라있으며(임영식, 2004), 미국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청소년의 사망원인 2-3위 수준에 있다(Granello and Granello, 2007). 이처럼 청소년의 자살은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문제이자 사회문제이다(Ayyash-ABDO, 2002).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04년부터 자살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 자살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단일 차원에 국한해서 원인과 대책에 접근하거나 주로 심리적 불안정시기에 나타나는 충동적 행위나 우울, 불안 등 특정요인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다(Brent, 1987: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그러나 자살의 의미와 그 이유를 이같이 특정 변인에 맞춘다면 자살에 대한 의미와 이론은 간과되거나 축소되기 쉽고, 원인을 단편적으로 해석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Douglas, 1967).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그동안 자아존중감(Williams and Nada-Raja, 2001: Wild, Flisher, Bahana and Lombard, 2004: 박병금, 2006), 우울(김정수·노성덕, 2003: 김교현, 2004: 박병금, 2006: Ang and Huan, 2006), 무망감(Harter, Marold, Whitesell and Gobbs, 1996) 등 심리·정신적 요인이 주로 다루어져 왔으며 인지적 왜해(신민섭, 1993: 정영주·정영숙, 2007: 이은희·조운자, 2008), 대처 태도(Blau and Gullotta, 1996: Meehan, Peirson and Fridjhon, 2007)와 같은 인지적 특성이나 부부폭력목격 및 학대경험이나 가족화목,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와의 의사소통, 부부갈등, 부모결혼상태, 가정스트레스(Jaffe·Wilson·Wolfe, 1996: 박병금, 2006: 서혜석, 2006) 등의 가정요인과 학교만족(김정수·노성덕, 2003: 이은숙, 2007), 학업성취도(Dubow, Kausch, Blum, Reed and Bush, 1989: Kandal, Raveis and Davis, 1991: 정혜경 외, 2003: 박병금, 2006: 서혜석, 2006), 학교적응(전영주·이숙현, 2000: 김기환·전명희, 2000: 김현주, 2008),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Kandel 외, 1991: 전영주·이숙현, 2000: 김현주 2008: 이은숙, 2007) 등의 학교요인을 포함하는 외적 환경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외 약물남용(Roy 외, 1991)이나 자살 및 엽기사이트 방문(하연희, 2001: 박병금, 2007), 유명인의 자살(Shaffer, 1988) 등 사회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지위(Dubow 외, 1989), 성별(Sudak, Ford and Rushforth, 1984: 이은숙, 2007: 엄태완·강명진·최종순, 2008: Bridge, Goldstein and Brent, 2008), 성별이나 연령(정영주·정영숙, 2007: Chang, Tao, Riley, Kann, Ye, Tian X, Tian B, Hu and Chen, 2009) 등의 인구학적 특성 역시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감안하더라도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특정의 몇몇 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거치면서 유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Baumeister, 1990: Wong, Ang and Huan, 2007). 최근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관련 변인 연구에서 다차원적 원인에 의한 자살위험이나 자살행동의 경로 파악이 주요 관심사(Prinstine, 2003: 이은희·조운자, 2008: 박병금, 2009)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 역시 충동이나 우울 등의 특정 원인에서 청소년 자살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찾기보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외적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변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살이론 중 외적환경과 심리·정신적, 인지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의 통합적 경로과정에서 자살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Escape Theory)’모형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Baumeister(1990)는 ‘도피이론(Escape Theory)’에서 자살위험은 기대를 꺾는 외부의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이나 부정적 환경이 자기 평가나 자아존중감을 낮춰 자신에게 지나치게 민감해지면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이러한 상황이 현실을 회피하는 부적응적 인지나 문제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가중시켜 결국 자살로 이끈다고 설명하며 자살에 이르는 6단계의 도식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외적 요인으로 학교 체계에 우선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원인이 주로 학교문제(김기환·전명희, 2000: 보건복지부, 2008) 때문인 것으로 각종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 중심의 치열한 입시 경쟁과 이로 인한 비인간화와 몰 개성화, 자신들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는 취약한 청소년 권리 등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교체계가 청소년을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하여 내, 외적 부적응 현상을 서구 청소년들보다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영주·이숙현, 2000: 이미리, 2006). 이를 통해 학교체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경로를 밝혀냄으로써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개입방안 수립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충동’, ‘자살사고’라는 말과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죽임을 가하려는 생각’(Bridge, Goldstein and Brent, 2008) 혹은 ‘자살을 행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White, 1989: 정영주·정영숙, 2007 재인용: 68),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 생각’ 등으로 정의된다(박병금, 2006). Reynold(1988)는 자살생각은 죽음과 자살, 심각한 자기상해 행동에 관한 총체적 생각과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여기에는 자살계획, 수행, 자살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생각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Wong, Ang and Huan, 2007에서 재인용: 232). Reed와 Bush(1989)는 자살생각을 자살시도, 자살완료로 이어지는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Kumar와 Steer(1995)는 자살하기 위한 바램, 상상 또는 계획으로서 자살생각은 실제 자살시도에 선행하는 과정으로서, 자살생각이 자살 시도의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정영주·정영숙, 2007에서 재인용: 68) 자살생각을 감지하는 것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2008)가 조사한데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률은 남자가 15.4%, 여자가 22.9%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2008)의 조사에서는 한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본 경우가 전체의

46.0%에 달했으며 그중 여학생은 70.1%, 남학생은 49.6%였다. 물론 자살생각률은 조사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발달 과업과 심리적 혼란을 함께 겪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자살생각에 시달리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심각할 경우 자살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의 증가는 청소년의 자살의 위험을 높여 결국 실제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률 실태는 여러 함의를 던져준다. 본 연구 역시 자살의 예방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자살시도나 자살완료 등의 극단적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살생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살생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의 자살이나 자살생각과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 중 일부만을 다루거나 단편적 직·간접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러 다양한 요인들 간의 경로 관계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했으며(손정남, 2009)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경로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정보 또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다(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 및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을 자살생각으로 이끄는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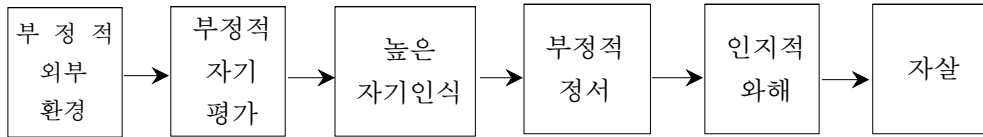
한편, 일부에서 자살위험과 같은 문제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박재연, 2010) 구분용과 유재민(2003)이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한 영향변인 158개를 데이터 마이닝하여 최종적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 적용시켰을 때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Pelkonen과 Marttunen(2003) 역시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을 강화하는데 앞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한 위험요인에 우선 초점을 두어 다루었다.

2) Baumeister의 도피이론(Escape Theory)

도피이론은 인간의 자살위험을 단편적인 원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외적 환경과 심리·정신적 요인, 인지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을 동시에 다뤄 자살을 설명한다(신민섭, 1993). 또한 다양한 차원의 예측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어떠한 선형적 경로(linear paths)를 거쳐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process)을 보여주는데 유용한 모델로 활용되어 왔다(Dean and Range, 1999; Blackburn, Johnson, Blampeid, Popp and Kallen, 2006).

도피이론을 처음 주창한 Baumeister(1990)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화하였으며 보통 6단계의 과정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a) 외적 환경으로 인해 빚어지는 현실 상황이 일반적인 기대나 표준에서 벗어나는 단계, b)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부정적 상황에 대해 자기 탓, 자기비난을 하며 자기 존중감이 저하되는 단계, c) 이로 인해 자신에게 매우 민감해져 지나치게 자기를 인식하는(self-awareness) 단계, d)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의 단계, e) 인지적 왜곡(cognition distruction) 단계, f) 자살(생각, 행동, 완료)단계 등을 거치는데 다양한 변수들이 일련의 경로를 거치면서 작용하여 자기 파

피적인 자살위험을 증가시키고 결국 자살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살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관한 측정 가능한 합리적 과정을 제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자살을 통합적, 논리적 과정으로 설명한다(Dean and Range, 1999). 이러한 일련의 과정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도피이론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도피이론의 모형 구조(Baumeister, 1990)

본 연구에서는 Baumeister(1990)의 도피이론 모형 6단계를 5단계로 설정하여 모형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모형의 3단계 과정인 자기인식단계의 경우 자기부정이나 자존감 하락과 의미가 다소 유사하여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를 생략하거나 자기평가 과정인 자아존중감 저하 단계를 자기인식과정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Dean and Range, 1999; 이은희와 조운자, 2008) 본 연구도 이에 따랐다.

도피이론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예가 흔치않은 가운데 Dean과 Range(1996)가 대학생 168명을 대상으로 도피이론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에서 부정적 생활사건과 완벽주의, 완벽주의와 우울, 우울과 무망감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며 뒤를 이어 삶에 대한 인식과 자살간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무망감과 삶에 대한 인식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피모델의 선형 경로들이(linear path)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모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Dean과 Range(1999)는 또 정신건강센터의 외래환자 중 성인 132명을 대상으로 도피이론을 적용, 우울과 무망감, 무망감에서 부정적 인지, 부정적 인지와 자살생각 간의 경로를 확인하였는데 대부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무망감은 직접적으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사건에서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여 도피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영주와 정영숙(2007), 이은희와 조운자(2008)가 도피이론의 일부 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혹은 자아정체감과 우울 및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각 경로들이 직·간접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피이론의 국내 자료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도피이론모형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활용하면서도 모형에서 제시하는 변인에 집중하지 않거나 일부 구조만 차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원형에 가까운 구조와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편, 도피이론 모형은 선형 관계에 의한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외적생활사건이라는 독립변인에 중심을 두어 심리·정신적 요인, 인지적 요인을 거쳐 자살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인 간의 복잡한 직·간접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도피이론이 제시하는 것처럼 부정적 생활환경이 자아존중감 및 우울, 인지적 왜곡이나 대처 특성 등 여러 매개변인을 거쳐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간접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른 변인과의 다양한 직·간접 효과를 발휘하는 결과도 선행연구에서 다수 발견되나, 도피이론모형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복잡한 구조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도피이론이 제시하는 다양한 변수의 경로를 기반으로 하면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직·간접 관계를 보완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3) 학교위험요인

학교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이 현재 및 장래의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전영주·이숙현, 2000).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체계에 관한 요인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즐거움의 부재와 학업에 대한 어려움, 교사 및 교우 등과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주를 이룬다(이종길, 2009). 즉, 학교에 대한 기대와 흥미가 없고,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교사나 친구 등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가질 때 청소년들은 종종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이러한 감정들이 자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Kandal 외(1991)는 학교 환경은 가족 못지않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친구지지와 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동호(1998)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낮은 성적과 친구와의 갈등이 자살생각에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류진아(2009)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관련해서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업 및 학업성적 진로나 입시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살을 주로 생각하는데 특히 학교 내 또래 간 문제가 있을 때, 공부가 힘들거나 성적이 마음먹은 대로 나오지 않을 때, 교사와 갈등이 있을 때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결국 학교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입시중심의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학교성적의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으며 교사나 친구관계 등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교위험요인은 자살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ato와 Lerner(198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와 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성취 역시 자아존중감과 관련을 가져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면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실패감, 낮은 동기, 낮은 성취감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지영과 이형실(2010) 역시 청소년의 또래 관계 질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은 학교 체계의 다양한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거나, 교사나 친구 등의 대인 관계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절망감을 느낄 때 스스로를 열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 있다.

학교요인과 우울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선행연구 역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었고, 일관적으로 두 변

인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uber, Forehand, Long, Burke, and Faust, 1987). 특히 청소년의 학업과 관련한 문제는 우울의 주요 예측변수가 되고 있는데 Rubin 외(1992)는 청소년에게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우울증에 유의한 스트레스라고 하였으며(홍영수, 2004에서 재인용: 25) 박금순(1995)은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성적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은 낮다고 하였다. 아시아지역 청소년들의 학업부담 문제를 다룬 Ang과 Huan(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부담은 우울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 역시 청소년의 우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Ayyash-ABDO, 2002) 실제로 Lin과 Tang, Yen, Ko, Huang, Liu, Yen이(2008) 대만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낮을수록 우울증 경향을 더 많이 보였고 이경님(2002)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생의 경우 또래 애착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도피이론에서 제시되는 인지적 외해나 회피적 대처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특히 학교위험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드물어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4)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의 관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더 많이 비롯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인적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Barker, 2003)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Lewinson, Gotlib and Seeley, 1997: Burwell and Shirk, 2006 재인용: 479).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며 이는 여러 실증 연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박병금, 2007). 서혜석(2006)이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lunkett 외(2007)의 연구에서 미국 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확인한 결과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iyez(2008)의 연구와 대만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in 외(2008)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Moos(1990)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인지적 외해의 특징인 감정적, 회피적 태도를 주로 드러냈으며(Mullis and Champman, 2000에서 재인용: 539), Berzonsky(1992)는 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과 대처 태도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겪을수록 현실 문제를 인지하는데 회피적 사고와 태도를 주로 사용하며, 자아정체성이 높은 경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하였다. Chapman과 Mullis(2000)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회피적 태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문제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며, 낮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을 피해가려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 개념이 인지적 특성, 특히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처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로부터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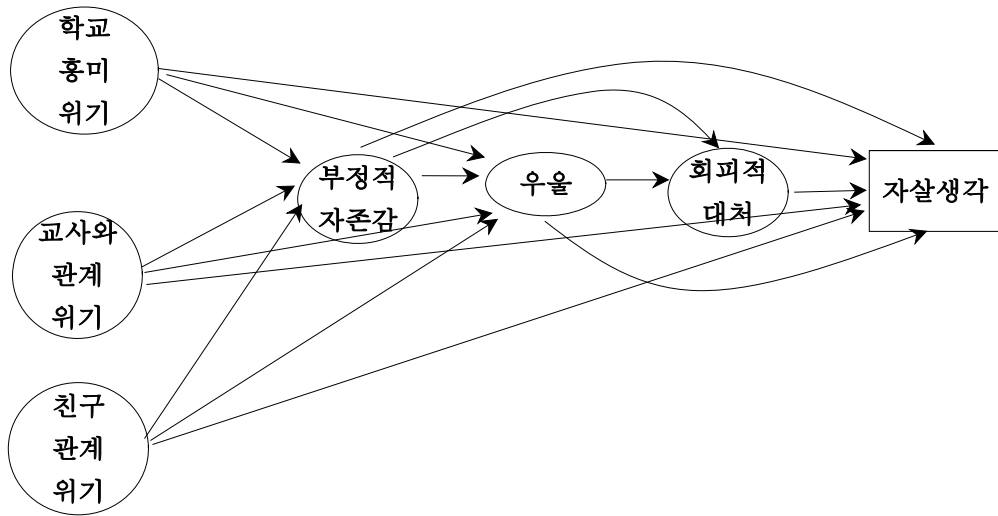
행하는 노력'으로 정의되는데(Lazarus and Folkman, 1984) 크게 적극적 대처(active coping)와 소극적 대처(withdrawal coping)로 나뉜다. 적극적 대처는 문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지적 시도와 문제나 결과를 직접 다룸으로써 그것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반면, 소극적 대처는 문제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인지적 시도 및 상황에 직면하기를 회피하거나 부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려는 행동을 말한다(류진아, 2009). 성인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를 동시에 드러내는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문제를 피하고 축소시키려는 소극적 태도를 자주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약물중독에 빠지거나 공격성,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나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을 드러내기도 한다(Suldo 외, 2008).

대처는 청소년 발달에서 중요한 관심 주제로 인식되면서도 실제로는 청소년의 자살위험과 같은 자기 파괴적 행위 측면에서 그리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대처에 대한 심리·정신적 측면의 영향력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Meadus, 2007). Kandal 외(1991)는 자아존중감이나 가족 스트레스, 사회 부적응 등과 함께 대처유형이 우울과 관련될 때 위기가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Lewis(1988)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겪은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 자기 파괴적 회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울과 대처 간의 관계를 알리는 실증적 단서를 제공했다. Meadus(2007)도 우울증을 가진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사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살에 이르는 복합적 변인의 경로를 설명하는 Baumeister의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학교성적위기, 교사관계위기, 교우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를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가 2008년 경상북도 24개 지역(10개 시, 14개 군)의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 경상북도청소년위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과 성별, 학년, 학교 등의 변수에 대해 무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8,936명의 자료 중 구미, 포항 등 2, 3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지역 청소년을 전체의 40%로 먼저 설정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시(市)이지만 농촌지역의 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도농복합지역으로 하여 30%, 군(郡)단위의 전형적 농촌지역 청소년을 전체의 30%로 각각 배정, 4: 3: 3의 비율로 표집하였다. 이는 원 자료가 경북지역의 특성상 농촌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데 따른 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어 주요 변수에서 결측 값을 보인 자료를 제외한 총 2,33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변수 구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2차 자료는 구분용 등(2005)이 개발한 위기평정척도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들이다.

(1) 학교위험요인

원 자료 중 학교위험요인에 해당하는 학교성적위기(4문항), 교사와의 관계위기(4문항), 친구관계위기(5문항) 등 3개 요인을 활용하였다. 이중 학교성적위기는 척도의 신뢰도를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한 개 문항을 제외한 것이다. 3개 요인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α)는 학교성적위기가 .77, 교사관계위기 .85, 친구관계위기는 .85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2)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원자료의 자아존중감 위기에 해당되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자신을 별로 가치있게 여기지 않았다' '나는 대체로 낙오자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위기,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α)는 .81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우울

원 자료의 우울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늘 마음이 슬퍼진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등 총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원 자료의 우울척도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자살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종속변수와 개념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문항을 제외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위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4) 회피적 대처

원 자료에서 사용된 회피적 대처는 '나는 문제를 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나 자신을 원망한다'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 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란다'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이 귀찮아서 잠을 청한다'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말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hronbach- α)는 .83이었다.

(5)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단일문항으로 측정된 것으로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경험을 물었다. 즉, 자살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동의 강도를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학교성적위기, 교사와의 관계위기, 친구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를 매개하여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방법은 측정모형분석이 먼저 실시되고, 여기서 측정모형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잠재변수 사이의 영향관계에 대해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다.

모형의 분석은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X^2) 통계치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는 적합도 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CFI, TLI, RMSEA 지수가 불필요하게 복잡한 모형을 선호하지 않고,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CFI, TLI 지수는 값이 .90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함을 의미하며,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05보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모형의 채택여부를 다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김주환 등, 2009).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2,335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1,151명(49.3%), 여자는 1,184명(50.7%)이었다. 고등학생은 1,486명으로(63.9%) 중학생 849명(36.1%)이었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이 782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510명(21.5%), 중학교 2학년 313명(13.4%), 중학교 1학년 292명(12.5%), 중학교 3학년 244명(11.4%), 고등학교 3학년 194명(7.5%)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930명(39.8%)이었으며 도농복합지역은 706명(30.2%), 군(郡)단위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699명(29.9%)이었다. 부모 상태는 양친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가 1,999명(85.6%)으로 대다수였으며 어머니만 있거나(130명, 5.6%), 아버지만 있는 경우(98명, 4.2%), 친부와 계모(47명, 2.0%), 친모와 계부(21명, 0.6%)가 있는 순이었고 양친 모두 없거나(18명, 0.8%), 양친 모두 양부모(15명, 0.6%)인 경우도 있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671명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했으며 어려운 편(444명, 19.0%), 잘 사는 편(153명, 6.6%), 매우 어려운 편(68명, 2.9%), 매우 잘사는 편(29명, 1.2%)이 뒤를 이었다.

2) 연구모형의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의 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X^2=2756.813(df=362)$, CFI=.929, TLI=.921, RMSEA=.053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자료와 비교적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 ²	df	p	CFI	TLI	RMSEA
2756.813	362	.000	.929	.921	.053

또한 모든 경로계수(요인부하량)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학교성적위기1←학교성적위기	1.000	.771		
학교성적위기2←학교성적위기	.801	.639	.029	27.548***
학교성적위기3←학교성적위기	1.027	.741	.033	31.036***
학교성적위기4←학교성적위기	.696	.568	.028	24.662***
교사관계위기1←교사관계위기	1.077	.850	.025	42.726***
교사관계위기2←교사관계위기	1.000	.788		
교사관계위기3←교사관계위기	1.125	.840	.027	42.270***
교사관계위기4←교사관계위기	.842	.618	.028	29.858***
친구관계위기1←친구관계위기	.852	.782	.022	38.801***
친구관계위기2←친구관계위기	.852	.681	.026	33.137***
친구관계위기3←친구관계위기	1.000	.790		
친구관계위기4←친구관계위기	.815	.722	.023	35.463***
친구관계위기5←친구관계위기	.904	.736	.025	36.242***
자아존중감1←부정적자존감	.904	.750	.025	36.271***
자아존중감2←부정적자존감	1.000	.755		
자아존중감3←부정적자존감	.755	.708	.022	34.110***
자아존중감4←부정적자존감	1.009	.696	.030	33.446***
우울1←우울	1.025	.813	.026	39.542***
우울2←우울	1.083	.857	.026	41.813***
우울3←우울	.838	.757	.023	36.589***
우울4←우울	.945	.695	.028	33.348***
우울5←우울	1.000	.742		
우울6←우울	.935	.634	.031	30.235***
회피대처1←회피적 대처	.798	.607	.046	26.666***
회피대처2←회피적 대처	.972	.703	.046	26.955***
회피대처3←회피적 대처	.981	.715	.045	24.423***
회피대처4←회피적 대처	.869	.624	.050	25.612***
회피대처5←회피적 대처	1.014	.665	.045	27.733***
회피대처6←회피적 대처	1.000	.74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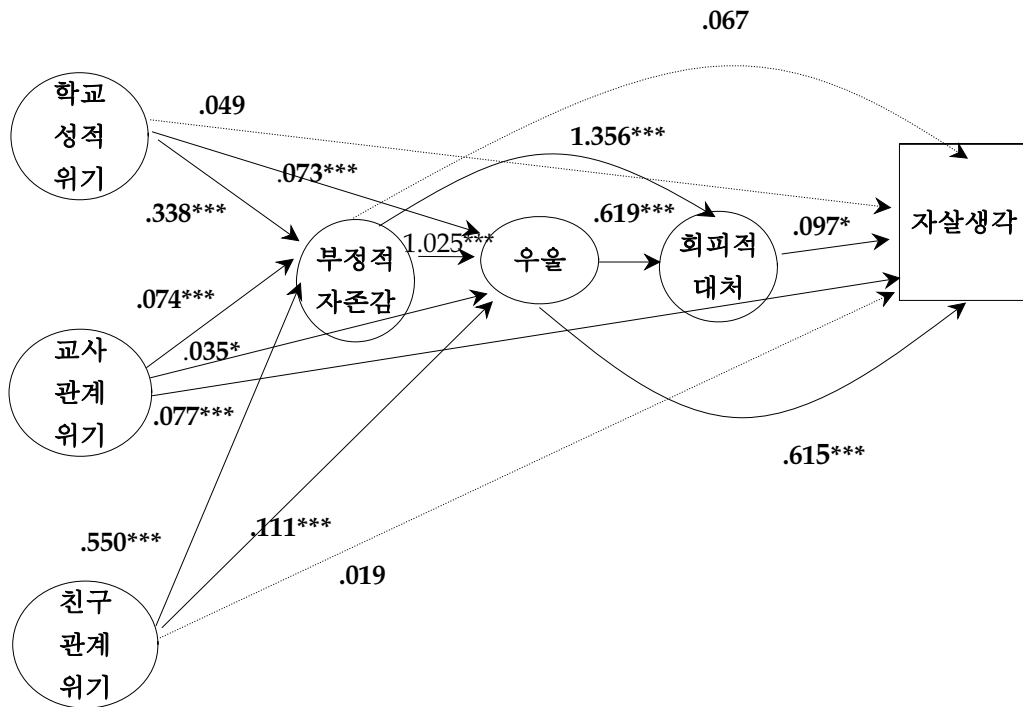
3) 구조모형분석 결과

다음으로 잠재변수 사이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2894.276	388	.000	.928	.920	.053

다음으로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 〈표 4〉와 같다.



〈그림 3〉 잠재변인 간 표준화된 경로계수(점선 화살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표 4〉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학교성적위기→자살생각	.084	.049	.048	1.750
교사와의관계위기→자살생각	.112	.077	.034	3.338***
친구관계위기→자살생각	.025	.019	.046	.540
학교성적위기→부정적 자존감	.448	.338	.033	13.613***
교사와의관계위기→부정적 자존감	.084	.074	.025	3.330***
친구관계위기→부정적 자존감	.567	.550	.026	21.669***
학교성적위기→우울	.099	.073	.026	3.808***
교사와의관계위기→우울	.041	.035	.019	2.215*
친구관계위기→우울	.118	.111	.023	5.041***
부정적자존감→우울	1.059	1.025	.038	27.498***
부정적 자존감→회피적 대처	1.057	1.356	.081	13.013***
부정적 자존감→자살생각	.087	.067	.207	.419
우울→회피적 대처	.467	.619	.072	6.510***
우울→자살생각	.768	.615	.136	5.630***
회피적 대처→자살생각	.161	.097	.084	1.907*

* $p<.05$, ** $p<.01$, *** $p<.001$

각 경로에서 학교위험요인 중 교사와의 관계위기→자살생각으로의 직접 경로는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077로 교사와의 관계에 위기가 커지면 자살생각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성적위기→자살생각(.049)과 친구관계위기→자살생각(.019)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성적위기→부정적 자존감의 직접 경로(.338)와 교사와의 관계위기→부정적 자존감(.074), 친구관계위기→부정적 자존감(.550)의 경로들은 $p<.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여 학교위험요인의 증가는 부정적 자존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자존감→우울 경로(1.125), 부정적 자존감→회피적 대처(1.356)의 경로가 유의미하여 부정적 자존감이 커지면 우울과 회피적 대처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자존감→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우울→회피적 대처의 경로(.619)에서 우울이 증가할 경우 회피적 대처도 많아지며 우울은 자살생각에도 직접 영향(.61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회피적 대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097, $p<.05$) 역시 유의미하여 회피적 대처행동이 증가할 경우 자살생각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성적위기, 교사와의 관계위기, 친구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 등의 매개변수와 자살생각이라는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본 결과, 본 모형에서 자존감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는 .602, 우울은 .863, 회피적 대처는 .670, 자살생각은 .388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이 부정적 자존감을 60.2%, 우울 86.3%, 회피적 대처 67%, 자살생각을 38.8% 설명함을 알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총효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유의도를 확인한 결과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

미하였다. 이는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 부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대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 위기는 직, 간접적 경로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직접효과가 간접효과에 비해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으로써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특히 직접적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모형의 경로계수 효과분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표준값	95% 신뢰구간의 상·하한값
학교성적위기→자살생각	.112**	.049	.163**	.126-.197
교사와의관계위기→자살생각	.147**	.077***	.070**	.044-.096
친구관계위기→자살생각	.289**	.019	.270**	.220-.317

*p<.05, **p<.01, ***p<.001

4) 연령의 조절효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생(N=847)과 고등학생(N=1,486)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에 따른 모형동일성을 검토하였다. 구조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측정모형에서 모든 잠재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추정을 자유롭게 하는 기저모형의 적합도는 $X^2=3221.680(df=724)$, CFI = .927, TLI = .918, RMSEA = .038로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이어 요인적재치를 두 집단에 동일하게 부여한 측정동일모형을 실행한 결과 적합도는 $X^2=3260.695(df=747)$, CFI = .926, TLI = .920, RMSEA = .038로 역시 대체로 적합하였다. 기저모형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의 X^2 차이는($\Delta X^2=30.015$, $\Delta df=23$, $p=.148$) 유의미하지 않아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들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하고 기타 경로계수의 측정은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한 비제약모델의 적합도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이어 모형 내에 존재하는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화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화 제약모형을 비교한 결과 두 모형 간 X^2 차이($\Delta X^2=20.288$, $\Delta df=17$, $p=.262$)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성적위기, 교사와의 관계위기, 친구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존감, 우울, 회피적 대처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간접 경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6〉 구조모형의 중·고등학생 집단 간 동일성 검증

	$\chi^2(df)$	$\Delta\chi^2(\Delta df)$	CFI	TLI	RMSEA
비제약모형	3454.883	20.288(17)	.924	.917	.038
제약모형	3475.171	p=.262	.924	.919	.037

5.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자살에 이르는 복합적 변인의 경로를 설명하는 Baumeister의 '도피이론'을 기반으로 학교성적위기, 교사관계위기, 교우관계위기 등 학교위험요인이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를 거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성적위기와 친구관계위기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학교위험요인 중 드물게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살위험에 대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성적 및 학업수행능력, 학교에서의 친구관계 위기들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Resnick et al, 1993; Ang and Huan, 2006; 박병금, 2007)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요인들이 자아존중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Eato and Lerner, 1981) 우울(Rubin et al, 1987; Lin et al, 2008)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과 더 일치하였다. 한편, 학교위험요인은 동일하게 자살위험의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악화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였다.

둘째, 학교성적위기, 친구관계위기는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 회피적 대처 등 심리·정신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등을 거쳐 변인 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발휘하였다.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직접 영향뿐 아니라 간접영향도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보다는 영향력이 낮았다. 따라서 다양한 학교위험요인에 청소년이 노출될 경우 자살생각과 같은 자살위험은 직접적 경로뿐 아니라 간접 경로 등의 복잡한 구조에 의해 진행되고,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박병금(2007)이 학업성취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Harter, Marold 그리고 Whitsell(1992), 전영주(2001), 홍영수와 전선영(2005), 우체영 외(2010)가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가 우울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는 것이다. Prinstein(2003)은 청소년의 외적 환경이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접적 경로보다 오히려 다양한 변인을 통해 자살위험을 강화하는 간접 경로에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적에 대한 부담이나 잘못된 교우 관계 등은 자살생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부정적 자존감의 증가와 우울이나 회피적 대처태도를 가중시켜 결국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일

부의 특정 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외적 환경, 심리·정서적 요인, 인지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직접경로뿐 아니라 간접 경로를 통한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연령별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에서 이러한 경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발달단계 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환경으로부터의 부담으로 인한 갈등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여서 자살생각에 더 취약하며(박병금, 2006) 또래관계나 자존감, 우울 등이 개별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역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게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우채영 외, 2010)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변인 간의 경로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연구가 드물어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확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특정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다양한 변인들이 직·간접적 관계로 얽혀 복잡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청소년 자살생각 등 자살위험을 주로 충동성이나 우울 등의 심리내적 요인이나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외적 체계 중 선별해서 제한적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하거나, 외부 사건과 심리내적 특성, 자살행동에 대한 단편적 매개효과 중심으로 다뤄온 데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자살은 청소년을 둘러싼 외적 환경과 내외 특성, 심리·정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일련의 경로를 통한 의사결정으로서 자살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접근도 보다 복합적, 다층적 구조에서 이해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우울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이라는 자조적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나머지의 개입들도 우울과 같은 자살위험의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고위험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개입방식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 체계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정기교육과 위험요인에 대한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을 체계화하여 저위험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저위험군은 친구관계나 기타 학교위험요인으로 인한 생활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달 특성을 감안한 자아존중감강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 우울이나 회피적 대처, 심각한 자살생각의 단계에 들어선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우울감소프로그램과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위험수준에 따른 특화된 자살예방접근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결, 각종 프로그램의 실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교복지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심리·정신 치료 및 상담 등 전문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 자살생각이나 자살위험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회피적 대처 등 심리·정신적, 인지적 요인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및 사회복지기반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은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체계의 경우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의 통합적 협력체계구축을 통해 교실에서의 교우관계, 심리내적 문제 도출, 심리·정신적 건강관리, 이를 중재하는 노력 등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개별적 접근 방식이나 형식적 다학제 협력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을 가진 정기적, 구체적 협력체계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체계에서의 위기는 다양한 심리·정신적, 인지적 위기를 동반하여 자살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교사와의 관계위기는 직접적 영향력이 더 클 만큼 상당히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가정을 떠나 사회성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로 교사는 사회화의 주요 롤 모델이다. 교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적 보호와 지원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를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이다(우채영 외, 2010). 따라서 청소년과 교사가 단순히 지식전달의 주체와 객체라는 개념보다 정서적 감화와 지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인간적 관계 회복을 모색해야 하고 교사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특성과 역동을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한 심리와 행동을 고려하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체계 내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보수교육에 청소년의 자살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상시적 자살 예방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입시와 성적 위주의 기존 학교시스템은 다소 거시적 측면에서 다뤄야하다는 제한이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처벌적이고 통제적 방식으로 교육하기보다 성적만이 유일한 능력의 척도가 아닌 다양한 강점을 찾아 지지해주고 잠재력을 이끌어 내려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친구관계 역시 청소년기 중요한 인간관계로서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자존감과 우울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간접적으로도 심리·정신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을 거쳐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학교 체계는 자살의 예방적 측면에서 또래관계사정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기술훈련을 통해 친구 간 지지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청소년기 친구관계는 감정적으로 편하게 해주고, 문제를 논의하는데 도움을 주며, 충고를 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이나 또래 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호천사 프로그램의 확대도 고려해볼 만하다. 또 자살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 안내하고, 또래의 생활사적 곤란을 최 일선에서 들어줄 수 있는 또래 도우미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이 경북지역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각 변인들의 발달에 대한 시간적 고려를 하지 못하고 모두 같은 시점에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횡단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2차 자료의 사용으로 인해 척도의 정교성이나 세분화가 미흡하여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문항이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주요 변수의 척도들이 적은 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변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어 이를 보완할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구본용·유재민. 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33-146.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55-68.

- 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9(1): 127-152.
- 김보영·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19(5): 651-661.
- 김정수·노성덕.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대학생활연구』, 21 : 153-172.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현주. 2008.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7: 69-93.
- 류진아. 2009.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대처방식에 관한 질적(CQR)연구”. 『청소년학연구』, 16(6): 45-79.
- 박경애·구본용·김원중·송중용. 1993. “청소년 자살행동 연구”.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박금순. 1995. “도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울증상과 관련요인 조사연구”.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관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근. 2006.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적 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연. 2010.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보호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0): 249-272.
- 서혜석. 2006. “청소년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정남. 2009. “청소년의 충동적 자살생각에 대한 모형 구축”. 『정신간호학회지』, 18(4):413-430.
- 송동호. 1998. “청소년 자살과 학교의 역할”.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2): 151-154.
- 신민섭. 1993. “자살기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 엄태완·강명진·최종순.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 무망감, 우울, 자살생각과 사회적 지지: 성차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22: 5-30.
- 우채영·박아청·정현희. 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 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 이경남. 2002.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인과모형”.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0: 41-56.
- 이미리. 2006. “고3 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과 우울과의 관계”. 『대학가정학회지』, 105: 89-98.
- 이은숙. 2007. “남·여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예측모형”. 『대한간호학회지』, 37(4), 576-585.
- 이은희·조운자. 2008.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사회연구, 16(2): 105-143.
- 이종길. 2009.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 『윤리연구』, 72: 209-332.
- 임영식. 2004. “청소년자살행동에 관한 고찰: 위험요인과 예측 및 평가. 예방-폭력 및 자살위험 청소년대책 가을 특별 세미나”.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59-90.
- 전영주·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영주·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외해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혜경·안옥희·김경희. 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청소년자살 예방프로그램 및 개입방안”. 『청소년상담연구』, 14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 홍영수. 2004.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대한 생활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자원의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

위 청구논문.

- 홍영수 ·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125-149.
- 보건복지부. 2008.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태분석 결과"
- 통계청. 2009. www.mw.go.kr
- Ang, R. P. · Huan, V. S. 2006.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using multiple regression." *Child Psychiatry Hum Dev*, 37: 133-143.
- Ayyash-ABDO, H. 2002. "Adolescent suicide: an ecological approach". *Psychological in schools*, 39(4): 459-475.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 Kovacs, M. · A. Weissman .1979. "Asse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lackburn, S. · Johnston, L. · Blampeid, N · Popp, D. Kallen, R. 2006. "An application of escape theory to binge eating."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4: 23-31.
- Blau, G. M. · Gullotta, T. P. 1996. "Adolescent dysfunctional behavior. sage.
- Brent, D. A. · Kalas, R. · Edelbrok, C. 1993. "Psychopath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suicide ide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5: 666-673.
- Brozensky. 1992. "Identity style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60(4),
- Bridge · Goldstein · Brent. 2008.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72-394.
- Burwell, A. · Shirk, S. R. 2006. "Self processes in adolescent depression: the role of self-worth contingenc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3): 479-490.
- Chapman, P. L. · Mullis, R. L. 1999. "Adolescent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Child Study Journal*, 29(1): 69-78.
- Cheng, Y. · Tao, M. · Riley, L. · Kann, L. · Ye, L. · Tian, X. · Tian, B. · Hu, J. · Chen, D. 2009. "Protective factors relating to decreased risks of adolescent suicidal behaviour". *Care, health & Development*, 35(3): 313-322.
- Dean P. J. · Range, L. M. (1996).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and perfectionism in college students. *Death Studies*, 20: 415-424.
- Douglas, J. D. 1967. "The social meanings of Suicid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ubow, E. F. · Kausch, D. F. · Blum, M. C. · Reed, J. ·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58-166.
- Eato, L. E · Lerner, R. M. 1981. "Relations of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perfections to adolescent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9: 143-150.
- Eileen M. · Helena, K. · Courtney, R. · Sylvia, S. · Leann · Robert, J. 1998. "Relationship of adolescent self-esteem to selected academic variables." *Journal of school health*, 68(2): 5-68.
- Fauber, R. · Forehand, R. · Long, N. · Burke, M. · Faust, J. 1987. "The relationship of young

- adolescent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 score to their social and cognitive function". *J Psycho Pathol Behav Assess*, 9: 161-171.
- Granello, D. H. · Granello, P. F. 2007 "Suicide: An Essential guide for helping professionals and educators". Pearson.
- Harter, S. · Marold, D. · Whitesell, N. · G. Gobbs. 1996. "A Model of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and peer support on adolescent false self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60-374.
- Jaffe, P. G. · Wilson, S. K. · Wolfe, D. A. 1996. "Promoting change in attitudes and understanding of conflict among child witnesses of family violence"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8: 356-380.
- Kandel, D. · Raveis, V · Davi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20: 289-309.
- Lewinsohn, P. M. · Rodhe, P. · Seeley, J. R. 1994.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ttemp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3: 25-36.
- Lin, H. C. · Tang, T. C. · Yen, J. Y · Ko, C. H. · Huang, C. F. · Liu, S. C. · Yen, C. F. 2008.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esteem, family, peer and school factors in a population of 9586 adolescents in southern Taiwan."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2: 412-420.
- Meadus. 2007. "Adolescents coping with mood disorder: a grounded theory study."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209-217.
- Meehan · Pierson · Fridjon. 2007.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t south african: the role of gender and coping strategies." *South African Journal of Psychology*, 140(4): 539-541.
- Mullis · Champman. 2000. "Age, gender, and self-esteem differences in adolescent coping styl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0(4): 539-541.
- Pelkonen, M · Marttunen, M. 2003. "Child and adolescent suicide". *Pediatr Drugs*, 5(4), 243-265.
- Prinstein M. J. 2003. "Social Factor:Peer Relationship". 2003. "Precursors to Adolescent suicide attempts". In Anthony Spirito·James, C. Overholser(pp 193-209), *Evaluating and Treating Adolescent suicide attempts, from Research to Practice*. UK:Academic Press.
- Plunkett, S. W. · Henry, C. S. · Robinson, L. C. · Behnke, A · Falcon, P. C. 2007. "Adolescent perceptions of parental behaviors, adolescent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ed mood." *J child Fam Stud*, 16: 760-772.
- Reschly, A. L. · Huebner, E. S. · Appleton, J. J. · Antaramian, S. 2008. "Engagement as flourishing: the contributuin of positive emotion and coping to adolescents' engagement at school and with learn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45(5): 419-431.
- Resnick, A. D. · Harris. L. J. · Blum. R. W. 1993. "The impact of caring connectedness on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J Paediatr Child health*, 29: 3-9.
- Reynold, V. M. 1988. "The epidemiology of teen suicide .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9: 36-41.
- Roy, A. · Segal, N. L. · centwell, B. S. · Robinett, C. D. 1991. "Suicide in twins" *Aroh Gen Psychiatry*, 48: 29-32.
- Seibel · Murray. 1988. "Early prevention of adolescent suicide". *Educational leadership*, 48-50.
- Shaffer, D. 1988. "The epidemiology of teen suicide: An examination of risk factor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49: 36-41.

Siyez, 2008. "Adolescent self-esteem, problem behavior,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urke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7): 973-984.

Sudak, H. S. · Ford, A. B. · Rushforth, M. B. 1984. "Adolescent suicide: An over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8(3): 350-363.

Wild, L. G · Flisher, A. J. · Bahana, A. · Lombard, C. 2004. "Association among adolescent risk behaviors and self-esteem in six domai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8): 1454-1467.

Wong · Ang · Huan. 2007. "Externalizing problems, Internalizing problems, and suicidal ideation in singaporean adolescents: sex difference." *Current psychology*, 25(4): 231-244.

Yoder, K. A. 1999. "Comparing suicide attemptors suicide ideators, and nonsuicidal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ning Behavior*, 29: 121-130.

Structural Relationship of School Risk Factors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Based on 'Escape Theory' Model

Park, Jae-Sook

(Daegu Hanny Universit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Escape Theory' model suggested by Baumeister(1990). Based on this analysis framework,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at complicat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school risk factors(risk of academic scores, risk of relation with teacher and risk of peer relation) on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through negative self-esteem,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To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008 Gyeongsangbuk-Do youth crisis survey' conducted by the Youth service center in province of Gyeongsangbuk-Do. The target number of this study was 2,335 students in the age group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risk of relation with teacher among school risk factors was only one which affected directly and indirectly on suicide ideation. The other side, risk of academic scores and risk of peer relation had indirect effects, via negative self-esteem,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school risk factors had effects on suicide idea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ey were complicatedly connected, through negative self-esteem, depression and withdrawal coping. Therefore,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ce' suicide ideation or suicide risk require integrated strategies and tactics.

Key words: school risk factors, adolescence, suicide ideation, negative self-esteem, depress, withdrawal coping

[논문 접수일 : 11. 02. 23, 심사일 : 11. 03. 09, 게재 확정일 : 11. 04. 22]